

다 함께 붓다로 살아갑시다

“사부대중 모두 주인”

총무원장 자승스님
결사 3주년 법회서
종단없는 쉼선 선언

“그동안 중단 없이 추진해 온 쉼선 결사가 이제는 교구와 사찰 그리고 스님과 신도가 함께 주인이 되어 정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결사의 내용을 지역과 계층별 특성에 맞게 차별적이고 창의적으로 마련해 '붓다로 살자'는 발원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스님) 주최로 지난 1월2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자성과 쉼선 결사 3주년 기념법회'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결사가 성과를 거두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 사부대중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 3년간 종단이 추진해 온 결사의 의미와 발자취를 조명하고 결사 2기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사회 갈등 해소 노력, 노동위원회 설립, 노동자 및 이주민 무차대회 개최, 종교평화선언 추진, 청구제정과 의식개혁 운동 등을 지난 3년간 결사를 통해 이룬 성과로 평가한 뒤, “34대 집행부에서도 결사는 '사찰과 함께 사회 속으로'라는 확고한 기조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지속적인 결사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앞서 결사본부장 도법스님은 “결사 3년의 최대 성과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붓다로 살자'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킨 것”이라고 평가하며 “사부대중 모두의 굳건한 발심과 서원의 열정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사부대중의 정진을 당부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붓다의 고귀한 삶과 정신을 따라 지금 여기서 거룩한 붓다로 살겠다”며 “우리 모두가 붓다임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온 세상이 생명평화공동체가 되는 그날까지 붓다로 살기 위해 힘 없이 정진할 것”을 발원했다.

▶관련기사 3면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지난 1월2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결사 3주년 기념법회에서 “붓다로 살기 위해 힘 없이 정진할 것”을 발원했다. 김형주 기자 cooljoo@bulgyo.com

“불서 읽으며 편안하시길” 총무원장 스님, 2500명에게 설 선물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조계종 제34대 집행부 출범 후 맞는 첫 번째 설날 선물로 불서를 선택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설날을 앞두고 “이웃에 기쁨을 더해 주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가는 한 해를 발원하면서 귀한 날을 맞아 두 권의 책으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자 한다”며 “나는 문학으로 출가했다”와 <마음이 행복하여라> 등 불서 2권을 사회 각계 인사 2500여

명에게 선물했다.

조계종출판사가 발간한 <나는 문학으로 출가했다>는 불교신문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문학인의 불교인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기획기사를 보완해 단행본으로 엮은 구도 에세이다.

<마음이 행복하여라>는 헤밍스님, 정목스님, 법륜스님 등 국민 멘토 스님들의 힐링 법문을 법보신문이 엮은 것이다. 총무원장 스님은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마음까지 편안히 해주는 치유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면서 “두 권의 책과 함께 마음이 편안해 지는 설날이 되길 기원한다”고 새해 덕담도 함께 전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2009년 11월 제33대 총무원장 취임 이후부터 매년 설날, 추석 등 명절과 부처님오신날에 불서 3000여 권을 구입해 불교계 안팎 다양한 인사들에게 나

눠주는 등 불서 보급에 앞장서 왔다. <당신은 부처님>, <탄허록>, <금에는 갈들이 없다>, <붓다브레인>, <하늘이 감춘 땅>,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현문우담>, <마음 밭에 무얼 심지>, <들을수록 신기한 사찰 이야기>, <오체투지>, <모두가 지켜야 할 겨울이야기> 등 그 동안 선물한 불서만 20여 종 11만여 권에 달한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소외이웃에 떡국 생필품...

불교계 복지관 '푸근한 설' 이끌어

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불교계 복지관들이 잇달아 합동차례와 떡국공양, 문화행사, 생필품 전달 등 나눔 행사를 개최하며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과거 단순히 떡국 지원과 선물 전달 등 물품 지원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작품발표회, 강연, 문화행사 등과 결합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불교계 복지관의 명절 나눔 행사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소외 이웃에게 물품 전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최유스님)는 지난 1월28일 설맞이 차례지내기와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새해 기원문 전서, 옷집, 투호 및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관장 최유스님은 “설맞이 문화행사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흥겨운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社告

‘군장병 위문품 보내기’

본지·군종교구·불교TV 공동캠페인

불교신문과 군종특별교구, 불교TV는 군포교 활성화를 목적으로 불교계 최초로 ‘군장병 위문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추운 겨울 전방과 초소경계로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하여 ‘햇팩(손난로)’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청년포교의 핵심인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 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991-000108(예금주:군종특별교구)

■ 문의 : 02-749-8646

설 연휴 휴무...2983호는 2월8일 발행됩니다

몽골 대통령 퇴임하더니 통도사 찾아가 마음공부

남바린 옹흐바야르 부부, 반아암서 금강경 배워

“금강경에 담겨 있는 뜻이 너무 깊다.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담은 금강경을 앞으로 더 배우고 익혀 몽골어로 번역하고 싶다.” 남바린 옹흐바야르 전 몽골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영축총림 통도사 반아암에서 지안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에게 금강경을 공부한 후 느낀 소회이다.

전직 국가원수가 천년고찰에서 7일간 머물며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금강경을 배운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지안스님은 남바린 옹흐바야르 전 대통령이 금강경을 공부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영어로 옮긴 텍스트를 준비했다. 스님과 전 대통령이 주로 영어로 문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강의에는 통도사 강원에 재학 중인 덕상스님(미국인)과 바트보양 몽골 스님이 통역을 도왔다. 지난 25일과 26일에는 반아암 신도인 설덕주 거사도 참여해 통역했다. 지안스님은 조계종립 은해사승가대학원장과 영축총림 통도사 강주(승가대학장)를 오랜 기간 역임한 대표적인 학승(學僧)이다.

남바린 옹흐바야르 전 대통령의 금강경 공부는 오전 9시~11시, 오후 2시~4시, 오후 7시~8시 등 매일 세 차례 이뤄졌다. 하지만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지기 일쑤. 금강한 점에 대해 질문을 반복하며 스님 답변에 귀를 기울였다. 또한 남바린 옹흐바야르 전 대통령은 노트에 강의 내용을 메모하고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며 경청했다.

전 영부인 철몽 여사는 영문 금강경 텍스트를 입력한 아이패드를 꼼꼼하게 보면서 공부했다.

젊은 시절부터 불교와 인연이 깊은 남바린 옹흐바야르 전 대통령은 티베트어 금강경을 몽골어로 번역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반아암에 머무는 동안에도 하루 세 차례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물론 공부할 때마다 지안스님에게 1배의 예를 올리는 등 신심 깊은 자세를 보였다.

지안스님은 “대통령을 지낸 분이 금강경을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처음에는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하지만 실제 겪어보니 학문적 깊이뿐 아니라 불교에 대한 신심이 아주 돈독한 분”이라고 말했다.

남바린 옹흐바야르 전 대통령은 한국불교와도 인연이 깊다. 대통령 재직 시절인 2006년 만해대사 포교부분을 수상한 남바린 옹흐바야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한-몽 문화교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금강경 공부에 앞서 남바린 옹흐바야르 전 대통령 내외는 통도사 금강계단 참배 후 주지 원산스님과 차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은 “몽골과 우리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으니 앞으로 (양국) 유대를 갖고 상생하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바린 옹흐바야르 전 대통령은 “아름다운 한국의 사찰에서 금강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준 지안스님을 비롯한 많은 인연들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에 공부한 내용이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환하게 웃었다.

통도사=이성수 기자



영축총림 통도사 반아암에서 지안스님(오른쪽)에게 금강경을 공부하는 몽골 전대통령 내외. 왼쪽부터 철몽 여사, 남바린 옹흐바야르 전 대통령, 덕상스님, 바트보양 스님. 반아암 신도 설덕주 씨.



Buddhism
Expo 2014



불교박람회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주관



불교신문

시행



주최하 마인드디자인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 경기도, 통도사

협력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중국사면 국제불사용품전람회, 불교출판문화협회, 부탄문화원

관람안내 | 2014불교박람회 사무국

전화 02)2231-2013 팩스 02)2231-2016 홈페이지 www.bexpo.kr

2014

03.06.목

03.09.일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

SETEC

(3호선 학여울역)

